

六 館種別 部會報告

(7月22日(日) 11時半)

會場：中央教育研究所 講堂

1. 公共圖書館 部會報告

仁川市立圖書館長 張 仁 植

저의 公共圖書館部會에서 討議된 論題는 「公共圖書館運動의 出發點」과 「公共圖書館을 어떻게 發展시킬 것인가?」하는 두가지 問題였습니다. 먼저 것은 慶州市立圖書館의 嚴大燮館長께서 말씀해주셨고 뒤의 것은 제가 擔當했었습니다. 이 두 問題를 各已 討議하는 가운데 事實上 많은 問題들이 論議되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重要的 問題만을 간추려서 報告드리기로 하겠습니다.

慶州圖書館長이 말씀하신 問題를 報告드리기前에 便宜上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왜 이렇게 不振하고 있는가?」하는 原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原因은 제가 맡은 問題를 論及함에 있어서 먼저 考察해 본 問題였습니다.

우리는 宜當 公共圖書館을 어떻게 運營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奉仕해야 하나 하는 問題와 같은 것을 討論해야 할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公共圖書館界가 直面하고 있는 實情으로서는 그것을 云謂할 階梯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圖書館分野 特別히 公共圖書館에 對한 基本的인 施策이나 姿勢조차도 全然 確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公共圖書

館界의 處地로서는 훌륭한 奉仕方法을 研究한다는 것도 가장 重要的 問題의 하나 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基本的인 問題들을 于先 檢討해야 할 쓰라린 立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萬若 只今 우리에게 힘이 許容된다면 그 두가지 面을 모두 論議해야 할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任務는 무거운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公共圖書館部會에서는 훌륭한 奉仕方法과 基本的인 問題等을 同時에 研究해야 할 것이었습니다만 根本的인 問題조차도 固立되어 있지 않은 뼈아픈 實情에 處해 있기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몇가지 根本的인 問題에 局限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圖書館 特別히 公共圖書館에 對한 政策이 全然 確立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即 圖書館法의 未制定, 圖書館을 爲한 指揮監督體係·行政機構·圖書館人의 身分·資格에 對한 法的保障措置等의 法律·制度等의 未備가 바로 그 예입니다.

둘째 公共圖書館을 設置 經營하는 地方自治團體當局自體의 理解와 認識이 不足합니다. 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法第125條의 規定에 依하여 圖書館을 設置經營하

고 있는데 그 條文을 보면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와 같이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義務規定이 아닌 任意規定으로서 現在로서는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는 唯一한 規定이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몇 個館을 除外한 大部分의 公共圖書館의 運營이 圖書館에 對한 素養이 없는 非專門職에 依해서 運營되고 있는 것입니다.

1957년부터는 延世大學校에서 1959년부터는 梨花女大에서 各各 圖書館學科를 設置하고 圖書館人을 養成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人材들은 學皆가 大學圖書館으로만 進出하고 있을뿐 學校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 分野에는 投身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人材의 貧困을 甚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非專門職들이나 大部分은 左遷되어온 不平公務員이거나 無氣力한 人士들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原因으로서는 財政制度에 未確立입니다. 圖書館法과 關聯될 問題이지만 貧弱한 地方財源中에서 圖書館財源을 捕捉하기 힘들고 圖書館財政에 對한 基準이 없으며 任意施設인 까닭에 自然輕視하여 아무런 基準없이 任意配定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섯째는 建物, 什器, 機具, 其他 行政裝備等의 施設이 全然未備 또는 不完備할 뿐 아니라 老朽頹廢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藏書의 貧困입니다. 낡은 日書와 無用한 藏書로서 書庫가 채워져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圖書購入費가 어처구니 없이 적은 것입니다.

일곱째로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奉仕對象은 大部分이 學生層이라는 點입니다.

公共圖書館은 本來의 面目이 各界 各層의 民衆을 對象으로 奉仕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現實은 極少數의 學校를 除外하고는 거의 모든 學校가 圖書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公共圖書館 座席의 8割以上을 學生이 占用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리하여 學生들의 踴躍거리를 하다 보니 本來의 對象을 喪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로서는 PR活動의 不足과 公共圖書館分野自體의 向上發度를 爲한 運動展開가 全無한 것입니다.

아홉째는 民衆의 理解不足도 한 原因입니다. 우리 圖書館人은 知識의 整理供給者임과 文化創造를 促進하는 役軍임을 自覺할 때 그 가운데 莫重한 任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늘 「요즈음 閑暇한가」 하는 式의 人事를 받습니다. 정녕 民衆은 圖書館員들이란 閑暇로이 冊이나 읽고 때로는 낮잠이나 잘수 있는 職業人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民衆은 圖書館人을 놀고 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의 PR活動이 不足한 탓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嚴大變館長이 말씀하신 「公共圖書館運動의 出發點」에 對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奉仕對象의 確實한 把握이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閱覽料徵收問題에 對해서 总的으로 廢止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閱覽料를 徵收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만인줄 압니다. 政府는 國民의 納稅의 一部를 當然히 文化福祉事業에 써야하는 것이며 國民은 均等하게 惠澤을 받기 爲해 無料로 利用할 權利를 가질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閱覽料를 支拂한다면 國民이 二重으로 負擔(納稅)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原理 밑에서 外國에서는 벌써부터 閱覽料制度를 廢止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藏書構成에 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高價한 古典을 산다던가 또는 民衆이 難解할만한 書籍을 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卽 民衆의 利用에 適合한 圖書를 選擇하여 藏書를 構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PR活動에 對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農村에 對한 文庫의 普及이 時急하다는 것도 말씀했습니다.

다섯째 圖書館建物の 位置가 市街의 中心地에 있어야 되며 예전 생각과 같이 公園의 一部를 使用하는等 閑寂한곳은 不適하다는 것입니다. 亦是 現代生活은 集團生活이기 때문에 繁華街의 一部를 비워서 圖書館을 짓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째는 內部施設이 貧弱하기 때문에 그것을 改善하고 強化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곱째 圖書館人의 職業戰線에 있어서의 理念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卽 社會教育의 指導者로서의 確固한 信念이 必要하다고 했습니다. 教育의 發達은 亦是 圖書를 통해서만 充實할 수 있다는 것과 自己技能의 發揮 또한 圖書를 통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藏館長 말씀은 以上 일곱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제가 다른 問題로 돌아갔습니다. 앞에서는 公共圖書館 不振의 原因을 考察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公共圖書館을 어떻게 發展시킬 것인가 하는

方案에 對해 考察했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圖書館法의 制定이 大端히 時急합니다. 이런 立法措置를 통하여 圖書館의 設置·普及을 義務化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制度를 完備기 爲해 機構를 改編하여 文教部內에는 圖書館局 또는 圖書館課를 設置토록 考慮하고 各道教育局에도 亦是 圖書館課係를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文教部에 圖書館專門職이 圖書館行政官으로 配置되어 있어서 圖書館에 對한 正當한 認識을 가지고 圖書館政策을 樹立하고 指導해야 합니다. 各道에는 圖書館專門職들이 獎學官(士)으로 配置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年次計劃으로서 可能할 것입니다. 이제 그 實例가 된 것으로서 어제 慶南地方의 報告에서 들은 것입니다. 만 慶南高校의 司書教師였던 金斗弘氏가 慶南道廳의 獎學士로 就任되었다고 하는데 司書教師로서 獎學士가 된다는 것은 價値 좋은 面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 專門職의 養成配置와 더불어 現職者中 有用한 職員에 對한 司書教育이 時急히 要請됩니다. 文教部, 圖協, 延世大, 梨花女大等 諸關係當局에서는 公共圖書館職員에 對한 再教育問題가 論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 財政制度의 確立입니다. 現在 우리나라는 國民所得이 大端히 낮기 때문에 各地方自治團體의 財政 또한 相當히 어려운 實情에 있습니다. 그러나 現代國家는 福祉國家이어야 하고 現代行政은 福祉行政을 指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福祉施設을 民衆에게 提供해야 합니다. 이런 義務感 때문에 地方自治團體가 어려운 地方財政을 무릅쓰고 여러 福祉施設을 마련

하여 運營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地方當局이 어려운 地方財政속에서 圖書館을 新設하거나 既存圖書館에 對하여는 國庫補助의 形態로서 育成해 줘야할 것입니다. 恒久的인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爲해선 恒久的인 財政의 뒷받침이 必要합니다. 只今까지는 純地方費中에서 조금씩 配定을 받아 僅僅 延命해 왔으나 앞으로 그것가지고는 到底히 支撐해 나갈 수 없는 實情입니다. 英美等의 先進國家에서 일찍부터 圖書館稅制度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이런 制度는 우리나라에서도 速한 將來에 實現되야 겠습니다.

(4) 公共圖書館의 年次的인 普及

公共圖書館을 普及發達시키는 問題에 있어선 一時에 實現해야 되겠다는 主張이 아닙니다. 百年大計에 依해서 年次的으로 몇箇씩 이뤄 나갈수 있습니다.

1961年末 現在로 우리나라의 郡이 140 郡, 185 邑, 1,407 面, 26 市, 15 個의 區가 있습니다. 地方自治團體는 5·16以後 地方自治臨時措置法에 依해서 郡單位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自治團體數는 從來의 1,758에서 166으로 줄었기때문에 市郡單位의 圖書館 普及이 아주 容易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邑面에 對해서는 郡圖書館을 中心으로 邑面單位의 分館制度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邑面은 洞里單位의 文庫를 普及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外國의 實例를 暫間들면 弱少國家 丁抹은 圖書館運動을 일으킨지 40餘年 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58 年度 現在로 人口 450萬에 大學은 모두 들 뿐인데 公共圖書館은 1,300餘個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人口 3,000名에

圖書館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을의 文庫는 將次 큰 圖書館으로 發展할 수 있는 길을 닦는것이라 하겠읍니다.

(5) 學校圖書館의 急速的인 發展과 普及을 促求해야 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現在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은 學生들의 치닥거리때문에 發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아까 「내가 本 韓國圖書館의 當面한 課題」속에서 크로슬린씨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即「圖書館은 國民學校부터 大學에 까지 設置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習慣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圖書館을 日常生活에 利用한다는 버릇도 하루 아침에 익힐 수 없는 것입니다. 學生들은 永久히 教育의 後進에서 自己自身을 일으켜가야할 것입니다. 圖書館은 바로 自身이 가질 수 있는 能力을 걸러주는 곳입니다. 大學까지 나오자면 16年이란 歲月이 걸립니다. 그동안 學校圖書館을 통해서 利用을 生活化시키고 讀書을 習慣化시킵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卒業以後에 있어서도 繼續해서 公共圖書館을 利用할 수 있는 能力和 習慣을 걸러주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結局 教育의 本質은 人間이 一生을 通하여 기리 繼續하는데 있는 만치 公共圖書館에 依해서 教育을 繼續시키자는 것입니다. 學校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問題는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을 併行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이 두 分野의 圖書館의 同時發展이 要請됩니다만 우리나라의 現實로 보아 學校圖書館을 앞질러 發展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는 公共圖書館運動을

展開하고 事業을 遂行해 나가는데 있어서 뚜렷한 道標(目標)가 아직 없습니다. 道標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指標없는 運動이나 事業은 마치 北極星도 羅針盤도 없는 배가 漆夜를 航海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圖協當局이나 公共圖書館部에서는 特別 留意할 問題가 아닌가 봅니다.

(7) 對外活動이 不振합니다. 지난날의 圖書館은 書庫와 閱覽室만을 가진 單單한 讀書施設로서 單純한 館內活動 以外에 期待할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公共圖書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在來의 消極的인 使命에 그치지 않고 名實함께한 地域社會文化의 心臟이 되고 있습니다. 레코오드·映畫필름·슬라이드·텔레비죤·美術品 등의 視聽覺資料를 具備하는 가 하면 集會室, 展示室, 研究室, 鑑賞室 등을 마련하고 映寫會, 學藝講座, 講演會, 座談會, 鑑賞會, 展示會 등의 文化教育行事를 開催하거나 地域社會에서 일어나는 文化的 集會를 後援해야 합니다. 메스컴 時代에 處한 公共圖書館의 새로운 奉仕手段과 機能을 發揮해야 합니다.

分館을 設置하고 貸出文庫, 북크·모빌 등의 事業을 展開하는 것도 主要한 對外活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地方에 있는 言論機關, 教育機關, 文化團體, 社會團體 등과도 有機的인 連絡을 가져 不可分의 紐帶를 맺는 것도 重要한 일입니다. 特別한 地域에 있는 各級 圖書館(同類機關) 相互間의 提携가 굳어져 함은 勿論 相互의 圖書館資料를 調査 把握해 둘 必要가 있습니다. 公共圖書館 個個가 그 自體의 對外活動을 展開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 聯合體로서의 對外活動도 個的發展에 甚大한 影響을 끼치게 합니다. 이 聯

合體가 主管하는 公共圖書館運動은 窮極에 가서 國民運動, 社會運動으로 까지 發展시킬 素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도 말하듯 있습니다만 圖協으로서의 公共圖書館運動의 強化는 가장 重要한 使命의 하나일 것입니다.

(8) 圖協에서 各道別로 模範圖書館을 하나씩 選定하여 育成해 나간다면 大端히 좋은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嶺南地方이나 湖南地方等地에서는 일부터 서울까지 模範圖書館施設을 求景하러 來往하는데 많은 費用을 들이게되기 때문입니다.

(9) 公共圖書館發展上 빠트릴수 없는 施設은 어린이圖書室입니다. 이 事業은 반드시 強行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公共圖書館事業에 對한 一般民衆의 認識이 不足하고 不振하는 原因의 하나는 어린이圖書室이 附設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只今의 民衆(成人)이나 官吏나 指導者들의 大部分은 어린이時節부터 圖書館教育을 받았거나 利用해 보지 못하고 成長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圖書館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다는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겨레가 近代에 겪어온 歷史로 보아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습니다. 萬若 只今の 어른들이 어린이時節부터 中學이나 大學을 나오기까지 一貫해서 圖書館教育을 받으면서 圖書館에서 知識을 研磨해 왔다면 이루 헤아릴수 없는 關心과 協調를 보내 주었을 것이며 보잘것 없는 오늘의 公共圖書館 꼴로는 後落하지 않았으리라고 壯談하고 싶습니다.

只今부터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大學을 나오기까지 學校圖書館이나 公共圖

書館을 利用하면서 成長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큰 期待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10) 公共圖書館을 爲한 指導機關이 없는 것도 不振의 理由가 될 것입니다. 公共圖書館에 對한 指導機能은 흔히 一國의 國立中央圖書館이 當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國立圖書館이 있는데 하나는 行政府傘下의 國立圖書館이고 하나는 最高會議圖書館입니다. 이 두 圖書館이 모두 國立中央圖書館의 口實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最高의 權威를 자랑하는 國立中央圖書館이 出現하여 公共圖書館에 對한 指導機能을 發揮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實로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界는 舊態依然한바 있습니다. 오히려 量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意味에서는 光復前보다도 後

落되고 있습니다. 光復後 다른 部面은 刮目할 만치 飛躍的인 發展을 가져온 點도 있습니다만 우리 公共圖書館界는 고스란히 잠자는 狀態를 繼續해 왔습니다. 先進國의 公共圖書館에 比해 數十年 光復線으로 부터도 17년이나 落後되었습니다. 이 落後性을 克服하려면 우리는 그동안 皮膜을 흘려 일을 보는 努力이 있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미칠까 말까 합니다. 歷史는 時時刻刻 빠른 速度로 變遷하고 있습니다. 우리 公共圖書館員은 어두운 闇에서 하루바삐 깨어나야겠습니다. 精神 民族的인 自覺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自己分析, 自己批判을 通해서 自身을 改善하고 革命할 때가 到來한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覺醒해야 하겠습니다. 頭緒없는 말음으로 公共圖書館部會報告를 以上으로 끄치겠습니다.

2. 大學圖書館部會報告

서울法大 圖書館 司書長 劉 永 珪

◎劉永珪(서울法大 圖書館 司書長)=어제 大學圖書館 部會議에서 論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大學圖書館의 奉仕」라는 題目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 「大學圖書館이 當面한 諸問題」에 對해서 李春熙先生께서 말씀했는데, 大概 제가 말씀드린 것을 要約한다면 「圖書協同購入」이라는 問題로서 勿論 그것은 各己 圖書館의 恣意에 屬하는 問題이겠지만 이런 事業을 위한 어떤 事業方策을 講究해서 이를테면 文教政策으로서 이것을 強力히 推進시켜주었던 하는 所見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所謂 「서지 公同事業」의 問題에 對해서 簡

單히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는 「亡失圖書의 處理問題」에 對하여 意見을 披瀝하였는데 이것은 國有財産法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慎重을 要합니다.

네째로는 「大學圖書館 設置基準令」에다 焦點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大學圖書館이 當面한 問題」에 對하여 李春熙先生께서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圖書館 專門職의 身分上의 適正한 待遇와 그의 保障問題에 對한 意見發表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見解發表에 對해서 여러모로 質疑가 있었으나 이러한 重大한 問題들은 臆분밖에 되지않는 時間에

解決될 問題가 아니기때문에 좀더 愼重한 研究와 討議를 爲하여 大學圖書館 部會란 이라도 어떠한 協議體라던지를 갖고 問題와 對質해보자는 意見이 絕對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學生들에게서 圖書費를 徵收하도록 建議하자 이런 等等的 提議들이 나왔었으나 그중에서도 大學圖書館으로서 가장 重要한 問題라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專門職의 地位向上」과 「大學設置基準令의 再檢討」라는 點들일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點을 中心으로 고찰할때

첫째의 專門職의 地位向上이라는것은 當然히 建議되어야 한다는 意見이었고 이 點에 對하여 李先生께서는 外國의 例를 들어가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內容으로서 李先生은 美國大學 圖書館運營에 關한 「뤼어베이·레포트」의 一部를 引用하였던 것이며, 이는 別途로 速記에 나왔을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小數의 專門家만이 생각하고 있는 問題가 아니라 現實의 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問題인 줄로 알겠읍니다만 亦是 國立大學圖書館의 專門職의 地位問題에 있어서는 現在이렇다할 滿足스러울만큼의 티—오가 策定되지 않아서 그것이 曖昧하고 따라서 이것이 大學圖書館發展에 큰 癥의 因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定員數가 좀 大幅的으로 늘어야 될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司書官의 티—오가 많아져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私立大學圖書館 또한 이에 同調하게 되리라 믿어집니다. 오늘날 大學圖書館의 奉仕라는 것은 그들이 願하는 훌륭한 資料의 所藏은 勿論이려니와 이들 資料를 依支하여 問題를 解決하려는 利用者들로 하여금 이들 資料를 十

分 遺憾없이 利用할 수 있게끔 指導 奉仕를 하는것이기때문에 大學圖書館 專門職의 地位는 學問의 으로나 實務技術面에서 보아서도 大學圖書館인의 그 地位는 훨씬 높여주어야 된다는것을 認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大學設置基準令의 再檢討라는 問題에 對하여 言及한다면 이것은 4288년에 大統領令으로 公布되었는데 그 第11條에 보면 大學圖書館은 學生1人當 30卷 每學科當 5千卷의 藏書를 備置해야하며 初級大學은 前者의 數量의 3分之2 以上을 備置해야된다는 것으로 莫然한 數字만을 羅列하였기때문에 오늘날 大學圖書館의 圖書의 質은 形便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당에서 合理的인 「스탠다아드」의 實情을 爲해서 現行基準令에 對한 科學的인 檢討가 必要하다는 點을 다시한번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때는 여러가지 「어푸로우취」가 있는 것입니다만 一 例를 들자면 大學卒業에는 4年間に 總 160學點 以上을 得點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選擇科目이 總學點數의 3分之1 以上, 또 教養必須科目이 남어지 3分之2중에서 그의 3分之1 以上을 그리고 남어지 學點數가 專攻科目에서 學點을 必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러한 實情과도 關聯시켜서 考慮해야된다는點, 또 하나는 大學圖書館의 利用對象者인 學生과 敎職員에 對하여 質의 水準을 認定해놓고, 假令 大學 下級學年에 對해서는 點數를 1포인트, 上級生은 2포인트, 優等生은 3포인트, 大學院生은 4포인트, 敎職員은 5포인트, 이렇게 奉仕의 對象을 나누어서 거기에 準해서 圖書의 數量과 豫算의 配定을 按配해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더러 더 나아가서

는 資料의 種類에 있어서도 가장 基本的인 參考로서, 그것은 어느 特定學科에만 專用되는 것이 아니라 利用者가 一般的 共通의 使用될 수 있는 그러한 參考資料는 몇卷以上 어떠한 것을 먼저 備置해야 된다는 式으로 선정된 標準目錄을 作成해서 이에 準해서 藏書의 質과 量을 檢討케 하는 基準를 設置한다든가 勿論 이러한 方法은 參考資料에만 局限될 것이 아니라 各特殊專門分野에 까지 妥當한 構想이지만 또한 大學을 設置할때 設置基準令에 어느程度로 到達했느냐 하는 것을 檢討할적에도 圖書館專門家들의 「콧미」가 이를 擔當하도록 마련해야 할 것 및 藏書의 構成狀況을 檢討하는데 있어서는 資料뿐만 아니라 어느程度 그 資料에 對한 目錄이 編成했느냐 다시 말하면 「투울」이 備置되었느냐 하는 點의 檢討도 考慮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圖書館이 相當量의 資料를 備置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充分利用케 할 수 있는 「투울」이 備置되어야지만 그 資料의 價値는 비로소 그 眞價를 發揮하게 되는 것입니다. 外에도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으나 于先 이러한 等等의 諸點을 設置基準令에다 反映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 大略 이런 程度로 意見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專門職 地位向上問題에 있어서 若干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야흐로 公務員 職制 再分類事業이 8月1日을 期하여 다시 始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機會에 저쪽 內閣事務處나 文敎部當局이라던지 또는 己往의 中央教育委員會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高等教育審議委員會로 再發足を 하였는데, 假令 그러한 機關과도 密接한 交涉을 通

하여 (우리가 당면한) 諸問題를 認識시키는 同時에 이問題에 對해서 法的으로 強力한 措置를 取해달라는 것을 要請하였으면 하는 저의 意見입니다. 時間이 없어서 이런 程度로 말하겠습니까만 其他 事項에 對하여 質問이 제시면 要領있게 簡單히 말씀해 주시면 意見を 討議事項에다 添加시키겠습니다.

◎司會 李鍾文(圖協 事務局長)=只今부터 約 5分동안 大學圖書館에 對한 質疑를 받겠습니다.

◎金병식(東洋工業高等學校 圖書館)=제가 大學校圖書館에 付託하고 싶은 것은 中高等學校圖書館에서 資料를 蒐集하는데에 있어서 困難한 點이 많습니다. 大學校에서 非賣品으로 發刊되는 것은 보내주는 것도 있고 보내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資料를 蒐集하는데 어떤 方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李鍾文(圖協 事務局長)=먼저 물고 싶은 것은 團體會員으로 加入하셨는지요, 各非賣品, 研究會誌 같은 것은 圖書館協會에서 蒐集해 가지고 團體會員에게 無料로 配付합니다. 料金徵收는 郵送料만 보내시면 됩니다. 可及의 有價로 나오는 것도 저의가 交涉해서 團體會員에게 無料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只今 問議하신대에 對한 答辭이 되겠지요 그럼 다음은 말씀해 주십시오.

◎白 麟(國立서울大學校 圖書館 司書官)=重要한 것은 大學組織에 있어서 組織의 強化, 거기에 對해서 제가 느끼는바는 大學圖書館 館長은 반드시 教授인데 그 밑에서 館長을 補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또 大學圖書館의 組織問題가 論議되어야 할 줄 압니다.

◎劉永玟(서울法大 司書長)=거기에 對하여는 司書와 司書官「TO」가 많이 確保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勿論 이렇게 水準을 높여져야만 大學圖書館의 入口實은 可能할 것이고 또 圖書館人 個人的인 立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하므로써 地位 向上의 보람과 身分保障 乃至는 將來 昇進의 期待可能性을 갖춘 業務에 忠實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當然히 여기에서 論議되어야 될것이며 前述한 바와 같이 까다로운 節次가 介在되어 있는 重要한 問題이기때문에 別途로 慎重히 檢討하기로 한 議題가 아니었나 합니다.

◎申宗淳(靑丘大學)=어제 會議에 參席 못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아까 大學設置 基準令을 말씀했는데 무슨 學生數니 學科當 몇千卷이니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豫算으로 計算했으면 좋겠습니다. 萬一 學生 1人當 30卷 이렇게 하게되면 大學藏書의 質을 低下시킵니다. 그러니 學生1人當 몇卷의 冊보다 金額으로 따져서 定員으로 해서 얼마의 豫算으로 해야될줄 압니다.

◎司會=冊에 內容이 30卷 50卷하니까 卷數만 많고 質으로는 形便없는 冊이 相當數에 達합니다. 그러던 우리가 圖書館을 運營하는데 그 冊이 書庫에 備置되기까지 經費를 產出합니다. 圖書館에 있는것을 그냥 내어다가 팔아서 얻을 수 있는 價格이라는 것은 冊값에 몇분의 1에 該當하는 冊들이 많습니다. 額數는 參考가 되겠지요.

◎白 麟(國立서울大學校 圖書館 司書官)=어제 大學圖書館會議에서 亡失冊에 對해서 意見이 있었는데.

◎劉永玟(서울法大 圖書館 司書長)=紛失

圖書라던지 破損圖書處理問題를 簡單히 말씀드린것 같습니다만 그 問題는 財政法이라던지……國有財産法을 參考해서 좀더 本質的으로 研究해야 될것 같습니다.

◎司會=財政法에 圖書購入費가 備品費로 되어있습니다. 備品費로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財政法으로 보아가지고 消耗品費로서는 못 넣습니다. 그것이 備品費로 되어있어가지고 서울大學校, 國立圖書館, 國家機關에서는 相當히 現實問題로 當面하고 있습니다. 正式案件으로 採擇해서 우리가 政府하고 審計院 監察員과 많은 特別세배이를 해서 서울大學은 몇卷 國立圖書館은 몇卷 어느大學은 몇卷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財政法上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또 事務監査를 하면 圖書館長들이 第一 골치를 앓는것이 그 問題입니다. 그 數字를 알아가지고 關係機關, 審計員, 監察員, 實務者 들끼리 解決하는 것이 어떨까요.

◎白 麟(國立서울大學校 圖書館 司書官)=이것이 財政法 物品會計規則에 있습니다. 過去 日帝 明治43年 財政法에 依할것 같으면 但千卷以下の 物件은 機關長의 恣意대로 處分할 수 있지만 千卷以上은 財務部長官의 決裁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法的根據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圖書館人들이 威脅을 느끼지 않는 立場에서 일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物品會計規則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司會=우리나라 物品會計法은 國家活動에 있어서 全 分野에서 必要한 하나의 스탠다드가 會計法입니다. 亡失圖書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은 困難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問題는 圖書館人들이 當面하고 있는 現實的인 問題이고 그래서 이問題를

事務的으로 審計院, 財務部, 監察員의 關係되는 분들과 議論해서 그 問題를 閣令으로 뒷받침해서 움직이는 것이 現實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單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金宗會(延世大學校 醫科大學 圖書館)=大學圖書館 運營에 關한 問題입니다. 大概 圖書館長은 教授로 되어있으며 館長 밑에 司書長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制度로 運營하는 것과 直接 한사람으로서 運營하는 것과는 다 一長一短이 있을것입니다. 그 問題에 對해서 說明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劉永珪(서울法大 圖書館 司書長)=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一長一短이 있을것입니다. 假令 獨單的으로 할 때에는 事務處理의 迅速성이란 것이 可能할 것이고 命令指揮系統 乃至는 合議的으로 일을 處理한다면 慎重을 期하게 될것인데 저는 後者の 體制에 따르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圖書館 運營이라는 것은 어떤 特定の 專門職 單獨的인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圖書館運營의 重要性에 鑑하여 合議的인 節次를 거치는 運營體制가 要請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各專門分野의 教

授들로 構成되는 圖書館 運營委員會 乃至는 圖書選定委員會라는 것을 組織하여 이를 通한 運營이 後日에 있을지도 모르는 圖書館運營狀況에 對한 非難을 免하게 되는 豫方策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라 現在에 있어서는 多數 圖書館에서 이러한 組織體를 갖고있는 現實입니다. 同時에 圖書館을 總長直轄下에 둔다는 그런 問題는 後에 圖書館의 組織을 根本的으로 따져볼 때 좀더 慎重히 檢討해서 그런 內容을 이번 建意事項으로 反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李珪範(釜山教育大學)=저는 教育大學 圖書館에 있으면서도 自身の 位置가 不明確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事情은 全國的으로 教育大學에 共通되는 問題입니다.

◎劉永珪(서울法大 圖書館 司書長)=그것은 教育大學 大部分이 그런 實情에 處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點을 建議事項으로 考慮하고 있습니다.

◎司會=다음 質問하신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大學圖書館部會 報告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내 박수)

3. 學校圖書館 部會 報告

京畿高校 司書教師 金 京 一

◎學校圖書館部會에서 討議된 問題는 두 가지 論題로서 첫째의 論題는 『學校圖書館運營의 實際』이고 둘째는 『學校圖書館이 當面한 諸問題』를 가지고 討議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가지 論題中 첫째의 學校圖書館 運營의 實際는 제가 發表하였습니

다. 發表主題의 大意로 보아 學校圖書館運營의 全般的인 것을 取扱하여 發表되었어야 할터이지만 아직도 韓國의 學校圖書館이 그의 教育的인 功能을 完全히 開發 體得함이 不足한 實情에서 學校圖書館運營의 全般的인 것을 다루느니 보다 오

히려 學校教育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은 어떠한 意義와 聯關性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서 學校圖書館의 參考事務活動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데에 對하여 研究發表를 하였읍니다. 內容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參考事務의 意義로부터 始作하여 重要性을 說明하였고 이어서 參考事務活動의 實際報告에 들어가 學校圖書館으로 하여금 放課後의 房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며 學校圖書館의 參考事務活動이야말로 教科課程과의 直結된 運營의 한 方法으로 時急히 研究 實踐되어야 할 奉仕活動임을 立證케 하였든 것입니다. 實際報告의 一部를 들면 參考事務活動에서 接受處理된 比率을 보건대 學校의 教科宿題解決을 爲한 問題들이 34.62%, 教室에서 이루어진 討論이 動機가 된 問題는 8.16%이고, 個人 趣味를 爲한 것이 8.39%, 그리고 特別活動에서 提起되는 問題 例를 들면 文藝班, 農村啓蒙班, 郵票班, 辯論班, 新聞班等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各班으로 부터의 問題가 36.21%로 되어있읍니다. 以上の 比率에서 볼수 있는 바와같이 거의가 學生들의 學校生活에서 提起되는 問題들을 學校圖書館은 解決해 주고 있음을 發見할 수가 있습니다. 特히 特別活動의 比率이 第1位를 占하고 있다고 함을 注視하며 研究되어야 할 課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參考事務의 實際의인 活動方法에 對하여 論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參考事務活動의 長短點으로서 몇가지를 이야기하여 結論을 맺었읍니다. 結論의 長點으로서 첫째 學生들의 教科宿題와 特別活動에서 生起하는 問題들을 圖書

館에서 解決해 줌으로서 學生들로 하여금 圖書館에 가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認識을 가지게 하며 圖書館利用 意慾을 再考시켰다는 點이며 短點으로서는 解決한 問題中에서도 滿足할만한 解決이 못되었다. 이 原因은 資料不足으로 因한 結果라고 볼수 있습니다. 以上으로서 첫째의 論題에 依한 發表를 끝 마쳤읍니다. 다음 둘째 論題인 『學校圖書館이 當面한 諸問題』는 釜山教育大學에 제시는 李圭범先生께서 發表가 있었읍니다. 이 論題는 現學校圖書館의 諸般 隘路點과 더부러 解決되어야 할 重要問題들이 討議될것으로서 部會에 參席한 여러 會員들의 많은 關心은 勿論이지만 기탄없는 討論으로의 誘導의인 役割을 하여 眞摯한 討論이 展開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論題의 內容을 말씀드리겠읍니다.

李圭범先生은 學校圖書館의 當面한 諸問題에서 먼저 學校圖書館의 育性을 爲한 行政의인 體系의 確立이 時急히 必要하다고 함을 強調하였읍니다. 이의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文敎部에 學校圖書館 擔當 獎學官을 配置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各道市郡까지도 獎學士를 設定하여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이 點에 對하여는 專職 司書教師인 金斗弘先生이 慶尙南道 獎學士로서 學校圖書館을 擔當하여 道內의 學校圖書館에 對하여 行政的인 뒷받침을 保障해 줌으로 우리나라 學校教育의 새로운 見地를 開拓함에 큰 役割을 다하고 있다는 事實로서 學校圖書館 擔當獎學官과 獎學士의 設定은 무엇보다 緊要한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또한 어제의 各道의 全體報告에서도 指摘된바 있지만 어떤 道에서는 學校圖書館에 對한 實

態를 調査하기 爲하여 道를 訪問하였으나
 전혀 學校圖書館의 實態를 把握치 못하고
 있는 實情임을 報告者로 부터 들었습니
 다. 이러한 實情과 教育行政에서 學校圖
 書館의 育性和 發展을 期함이란 매우 어
 렵다고 함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當面問題의 두번째는 從前까지는 學
 校圖書館運營費가 師親會費라든지 期成會
 費等에서 計定하여 調達되었을뿐 만이 아
 니라 學生들로부터 圖書館運營費로서 分
 期別 最低運營費를 徵收하였는데 이것이
 軍事革命以後 없어졌음으로 現在의 學校
 圖書館運營이 말이 아님을 指摘하면서 學
 校圖書館의 施設費와 運營費를 國庫로서
 負擔케 할 것이며 萬一 이것이 不可하면
 學校圖書館의 規模에 依據하여 最低限度
 額의 圖書費徵收을 承認하여 주어야 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特히 公立學校 같은
 데서는 設立者가 市長이면 應當 市에서
 運營費가 計定支出되어야 할터인데도 쏘
 려 考慮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며 이는 矛
 盾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司書教師의 T.O를 速히
 配定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現
 在 延世大學校에서 實施하고 있는 司書教
 師課程을 마치고 圖書館을 擔當하나 一週
 24,5時間의 授業과 學級擔任等の 過重한
 負擔으로 學校圖書館의 奉仕活動 學長의
 意慾을 喪失케 할 뿐만 아니라 學校圖書
 館마저 등지고 移動하는 實情임을 指摘하
 면서 이의 是正을 促求하였습니다. 또한
 司書教師의 養成을 爲한 講習을 보다 擴
 張하여 現在의 制限된 人員數를 增員함과
 同時에 年次의인 計劃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中央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地方에서도
 活潑히 講習會가 있어야 될 것이며 特히

熱意있는 教師들의 受講機會를 놓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
 으로 學生들의 圖書館利用教育을 正常的
 으로 實施하여 學生들의 效果的인 圖書館
 利用을 할수 있도록 教育시켜야 된다고
 하였고 이의 方法으로서 앞으로 있을 豫
 定인 教科課程改編時에 圖書館利用教育課
 程을 반드시 包含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
 습니다. 이 問題는 現 中學校 國語 2學年
 2의 圖書館利用指導를 爲한 單元으로서
 讀書의 見解와 圖書館이라는 單元이 있
 으나 이單元이 모두 教室에서 統一性없는
 用語의 解説로 끝맺이는 結果를 갖게 됨
 으로 實際 圖書館에서 이루어져야 할 單
 元인데도 不拘하고 그렇지 못한"利用指導
 로서 別 效果를 얻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이 짧은 利用指導만으로서는 到底히 效果
 的인 利用指導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以
 上이 學校圖書館이 當面한 諸問題에서 提
 議된 問題의 重要內容이었습니다. 끝이
 어서 全般的인 問題에 對한 全體討論이
 始作되었으며 討論內容은 仁川 濟水浦高
 等學校에 계시는 崔근만先生이 文教部에
 圖書館諮問機關으로서 圖書館審議會를 設
 置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提案이 있었
 고 보성高等學校의 黃성린 先生의 圖書費
 徵收承認을 爲한 建議書를 行政當局에 提
 出할 것과 學校圖書館을 學校長에 認識시
 켜야 할 것이라고 強調하였습니다.

이외에도 文教部로 하여금 學校圖書館
 設置運營에 關한 指針을 發行하여 各級學
 校에 配布하여 즐거울 要望하는 것과 學校
 圖書館 研究指定學校를 設定하여 研究發
 表게하라는 提案討論도 있었으며 또한 圖
 書館協會의 傘下組織인 地域別 學校圖書
 館協議會의 組織과 活動을 強化하도록 圖

協에서의 對策을 時急히 樹立하라는 提案도 있었습니다. 時間이 制限되어 있어서 저의 報告는 以上으로서 마치겠습니다.

◎姓名未詳(東國大學校 圖書館)=只今 報告에서 先生께서 司書教師職을 大幅的으로 增員해서 任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司書教師라는 것은 圖書館專門職으로만 하는지 或은 教科課目도 兼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金京一(京畿高校 司書教師)=元來 司書教師라고 하는 職은 그의 用語가 뜻하는 것과 같이 教師의 資格者로서 圖書館專門職의 課程을 받은 者를 司書教師라고 합니다. 司書教師는 授業을 擔當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外國에서는 授業時間이 열時間을 超過하지 않는 程度에서 授業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學校實情에서 專任司書教師를 두어 授業을 擔當치 않고 圖書館만을 擔當하는 專任 司書教師도 있습니다.

◎白××(春川……)=只금 저의가 建議하는 事項에 對해서 어떤 對算요.

◎李鍾문(圖協 事務局長)=우리나라는 民

主國家인데 只今 말씀하시는 先生任이나 答辯하는 저의나 一脈相通하는 面이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

◎李규백(中央大學校 圖書館)=圖書館을 擔當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學生들이 中等學校 때부터 圖書館利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圖書館에 들어오고 싶은 意慾이 있어도 또 물어 보기 싫어서 利用 못하는 것이 60%는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中等學校 時節에 讀書熱이 旺盛할적에 圖書館이 어떻다는 것을 認識시켜서 大學이나 公共圖書館을 利用할 수 있는 門을 열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京一(京畿高校)=좋은 말씀입니다. 先生께서 말씀하신 것이 結局은 學生들의 圖書館利用指導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 點은 學校圖書館의 教育的인 技能面에서도 매우 重要的 課題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 올린 報告에서도 이 問題가 크게 論議되었습니다. 學生들의 圖書館利用指導를 더욱 強化하여 大學으로 進出後에도 훌륭한 圖書館 利用者가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4. 特殊圖書館部會 報告

農業協同組合中央會 圖書室 趙 洙 永

◎趙洙永(農業協同組合中央會 圖書室)=報告 말씀을 드리기전에 各部會에서 어 제會議한 內容을 오늘 報告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우리 特殊圖書館部會가 不幸하게도 第一末席을 차지했습니다. 點心時間도 벌써 다 되었는데 그래서 于先 特殊圖書館 部會會議에 있어서 部會員 여러분이

나 이자리에서 報告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簡單히 말씀드리는데 對해서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特殊圖書館部會에서 「特殊圖書館의 技能和 當面問題」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特殊圖書館이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公共圖書館과 大學圖書館

및 學校圖書館을 除外하고는 全部가 特殊圖書館입니다. 말하자면 雜동산의 集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性格이 비슷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 技能을 論議한다는것은 어려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特殊圖書館에서 共通되는 點으로서 가장 基本이 되는 業務는 레프렌스 서비스 卽 임포메이션 서비스가 가장 基本이 되는 業務라는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特殊圖書館을 設置하는 母體機關의 當初의 目的이 自己내의 業務遂行이나 調査研究에 도움이 되기爲해서이며 그러므로 그네들의 必要에 應할수 있어야 되기때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恒常 分類나 編目は 어디까지나 임포메이션 서비스를 하기爲한 한 課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現實적으로 우리 韓國에 있어서 特殊圖書館界에 提起되는 當面問題들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것이 特殊圖書館에 있어서 레프렌스 서비스가 大端히 重要하다는 것과 또 어디서나 恒常 人員의 不足 圖書의 分類나 整理 또는 冊을 사드리는데 많은 時間을 虛費하여 根本이 되는 레프렌스 서비스에 注力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圖書分類나 編目 또는 圖書購入等에만 집착치 말고 레프렌스 서비스를 一層 強化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資料蒐集에 있어서 圖書外의 資料가 重要하다는것을 力說했습니다. 除限된 豫算에서 大部分 一般圖書를 사는데에 豫算을 虛費하고 있기때문에 이點을 考慮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圖書館 相互間의 貸出業務制度

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特殊圖書館에서는 基本되는 임포메이션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기때문에 恒常 自己圖書館에서 不足되는 임포메이션은 다른 圖書館에서 求해야 되기때문입니다.

다음에 인맥스를 作成해야 되겠습니다. 特殊圖書館의 業務遂行에 있어서 特殊圖書館의 레프렌스 서비스는 圖書館에서 받는 質問이 部分的이고 專門의이기때문에 이와같은 高次的인 임포메이션 서비스를 遂行하는데 있어 우리에게는 많은 투—출이 있지않으면 안되겠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人員問題를 들었습니다. 特別 特殊圖書館에는 그 圖書館에서 取扱하고 있는것이 特殊적이기때문에 적어도 有資格 司書를 한사람程度는 配置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特殊圖書館外에도 마찬가지로 圖書館人의 數가 制限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一般職 職員을 하나의 左遷視해서 配置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은 數個月에 걸쳐서 좀 일을 할수있게끔 만들어놓으면 판곳으로 轉出시키며 또 그 뒤로 오는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圖書館일에 難點이 있습니다.

다음에 特殊圖書館의 地位가 今尙 韓國의 實情上 하나의 係로서 存續하고 있는데 그와같이 屬할것이 아니라 于先 이것은 그機關 全體職員의 讀書施設 및 研究施設이기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獨立해야 되겠다는것입니다. 그機關의 直屬施設로서 크게는 하나의 「部」로 적게는 하나의 「課」로 昇格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特殊圖書館은 여러분이 아시다

서피 大部分이 오래前에 施設된 既存建物を 利用하고 있는데 그와같은 오래된 施設을 利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깨끗하고 明朗한 곳이라든지 中心部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大概是 倉庫와 같이 더럽고 어두운곳에 特殊圖書館이 設置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곳에서 特殊圖書館의 基本使命을 다할수가 있는지 疑問입니다.

以上과 같이 「特殊圖書館의 技能과 當面問題」에 對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軍圖書館의 性格과 技能」에 對해서 金윤태先生께서 말씀하셨습니다.

內容에 있어서는 軍圖書館은 運營面에서 單純히 軍作戰關係의 性格만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讀者들의 性格을 通해서 運營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作戰教育 將兵들의 一般의 敎養 및 娛樂이 要求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特殊圖書館이면서 一便 公共圖書館이라고 했습니다. 士官學校圖書館은 하나의 大學圖書館의인 性格인데 이것이 軍圖書館의 特殊 性格입니다. 그러던 軍圖書館에서는 어떤 技能을 發揮하고 있느냐 하던 圖書館을 必要로하는 첫째原因은 作戰上 當面하고 있는 時間과 正確性에 있어서 많은 參考資料의 效率的 蒐集 運營을 하는데 圖書館이 必要하며,

둘째 軍人の 思想善導와 精神武裝 셋째 軍人の 質的向上과 各種教育의 學習

네째 軍人の 一般의 敎養向上 娛樂을 爲해서 軍圖書館이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軍圖書館의 特殊性에 있어서는 利用對象者라는것은 軍人和 軍屬을 對象으로하고 있고 編成問題에 있어서는 軍圖書館은 中央圖書館의인 綜合의 技能을 띤 圖

書館과 于先 部隊圖書館 및 將兵의 敎養과 娛樂施設로서의 其他 圖書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資料의 構成問題에 있어서는 軍人の 여러階層이라든지 要求라든지 編成에 따라서 資料도 亦是 여러가지 種類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軍圖書館의 施設은 永久的인 것과 暫定的인 施設 및 移動의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運營의 特殊性에 對해서는 ① 部隊의 散在·戰線·僻高地 等の 支援을 爲하여 分館이나 移動圖書館 設置運營을 해야하고 ② 暫定的인 讀者인 將兵을 爲한 積極的인 對外活動을 해야하고 ③ 指揮官 및 關係參謀等 指揮·命令權者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度에 따라 圖書館의 運營이 隨時로 變動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軍圖書館의 技能에 對해서 ① 運營 및 作戰을 爲한 인포메이션 센터로서 參考資料의 蒐集 및 效率的 運營 ② 軍事教育이라든지 一般의 教育 研究를 爲한 參考資料室로서의 圖書館奉仕 ③ 將兵의 一般의 敎養向上과 健全한 娛樂을 爲한 資料支援 및 奉仕하는 것이 軍圖書館의 技能이라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저와 金윤태先生이 말씀한 다음에 여기에 對해서 여러가지 點을 論議하고 大概 이問題에 對해서 意義없이 歡聲을 했습니다. 그외에 또 論議된것으로는 첫째 이것은 協會當局에 建議가 되겠습니다만 特殊圖書館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性質이 다른 여러가지 圖書館의 集團이어서 이를 一般化하여 論議할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特殊圖書館部會에서는 같은 性格은 같은 性格끼리 例를들어 銀行圖書館은 銀行圖書館끼리 軍圖書館은 軍圖書館끼리의 組織 다시 말해서 各種分

會를 組織하여 거기서 眞摯하게 論議한 다음에 全體部會에서 論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重要問題로 協會에 提起하는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은 大學圖書館 部會報告에서도 나온 問題인줄 압니다만 그래서 簡單히 말씀드리면 粉失圖書에 對해서 좀 研究를 해달라는것입니다. 셋째는 海外資料의 求得에 있어서 迅速性を 期할수 있는 어떤 方法이 있지않는가 이와같은 點이 論議되었습니다. 지루한 時間 大端히 罪悚합니다.

◎金允泰(國防大學院 圖書館)=이것은 特殊圖書館外에도 關係가 되는것인데 아까 어느 先生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따르는 써어비스에 對한 資料가 모자란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는 原因이 있다고 봅니다. 저의는 藏書가 10萬卷이 있는데 編目이 모두 各各입니다. 編目を 統一해야 되겠습니다.

◎司會 李鍾文=圖書館協會에서 編目規則 編纂事業에 着手했습니다. 來年에는 完成될 것입니다. 技術分科委員 全員을 動員해가지고 해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今年 年末이면 30%가 完成되고 來年이면 完全히 됩니다.

◎金允泰=國防大學院 같은데 보더라도 軍隊에서 하는 特殊性을 가졌기 때문에 專門家들의 意見보다도 그때 그때의 指揮官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나가는 傾向이 많은데 亦是 이것도 앞으로 反映시켜서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렇다고 해서 別다른 特殊한 材料를 다루는것도 아닙니다.

◎李鍾文(圖協 事務局長)=國防大學院은 性質이 士官學校와는 달습니다. 士官學校의 위입니다. 國防의 立場에서 國家의 經濟 社會 이런것을 全部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陸軍士官學校나 空軍士官學校 이것은 嚴然히 大學圖書館에 들어가야 될것입니다. 協會에서 事務的으로 特殊圖書館에 넣고 이번에 配定을 하다가 보니까 이 問題가 擡頭했거든요 또 여기서도 그런 問題가 擡頭되었는데 이것이 이번 會議의 成果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大學圖書館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런지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해본 다음에 그 決定이 내릴 것 같습니다.

다음 質問이 없습니까 없으면 特殊圖書館部會의 報告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只今 이 會議는

公共圖書館이 21 大學圖書館이 69

學校圖書館이 73 特殊圖書館이 29

이래서 總 192個圖書館이 모였고 參加 人員數는

公共圖書館에서 37名

大學圖書館에서 99名

學校圖書館에서 74名

特殊圖書館에서 33名 이래서 總 243名입니다. 그래서 只今 이會議는 192個圖書館의 243名으로서 進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午前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時間이 超過된 關係로 點心을 마치고 2時까지 다시 이자리에 모이겠습니다. 只今 12時半인데한 1時間半의 餘裕가 있습니다.